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춘곤 의원 외 26명
- 나. 의안번호: 제2545호
- 다. 발의일자: 2025. 3. 31.
- 라. 회부일자: 2025. 4. 2.

2. 제 안 사 유

- 종이 영수증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또는 매립 처분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초래함. 또한 잉크에 함유된 비스페놀A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불법 유통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그간 정부는 지자체 및 유통업체 등과 함께 ‘종이 영수증 없애기 협약식’과 ‘스마트 전자 영수증 이용 촉진 및 활성화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전자 영수증을 이용한 교환·환급이 어려울 때가 있고, 업소별로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하며, 중소가맹점은 전자 영수증 시스템 구축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전자 영수증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기업 등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교육·홍보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가.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지원 규정 신설(안 제24조의3).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목표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노력과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2017년부터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선포식’ 개최 및 다양한 업무협약¹⁾을 체결하는 등 전자 영수증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관련 시민 의식이 부족하고 사용 방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업체별 호환도 제한적이어서 전자 영수증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임.
- 환경부 보도자료(2018년)에 따르면, 종이 영수증 발급 건수는 연간 129억건으로 발급 비용만 1,031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 과정에서 22,89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종이 영수증 발급량 및 환경적 영향>

구 분	영수증 1건당 환경적 영향*	연간 영수증 발급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발급 건수	1건	128.9억건**
온실가스 배출량	1.776g	22,893톤
영수증 발급 비용	8원	1,031.2억원
원목 벌목	0.00001그루	128,900그루
쓰레기 배출량	0.726g	9,358톤

* 전자 영수증서비스 사업화 연구결과 보고서(201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국내 종이영수증 발행 현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분석 결과 반영

** 2018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를 통해 발행된 종이영수증 발급량(금융감독원 제공)

1)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 친환경 소비의 첫걸음(환경부 보도자료, '17.01.16), 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체도 함께 해요(환경부 보도자료, '19.08.30),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2.22)

- 또한, 종이 영수증은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A가 함유된 감열지를 사용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²⁾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종이 영수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경우 카드번호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안 제24조의3은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시장의 노력과 교육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자 영수증 사용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은 물론, 시민 건강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2)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의 유해성 및 제도 개선 방안(국회입법조사처, '19.12.12)